러시아, FIFA·UEFA 퇴출 결정에 반발…CAS 제소 가능성

러시아대표팀·클럽 주관 국제대회에서 모두 퇴출

RFU "이번 결정, 스포츠 정신에 위배…명백한 차별"

러시아축구협회(RFU)가 국제축구연맹(FIFA), 유럽축구연맹(UEFA)의 러시아 대표팀과 클럽의 모든 국제대회 출전금지 제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RFU는 1일(한국시간) FIFA, UEFA의 출전금지 제재가 나오자 성명을 통해 "모든 러시아 팀에 대해 무기한 국제대회 출전금지 제재를 내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FIFA, UEFA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러시아 국가대표, 소속 클럽들은 주관 국제대회에서 퇴출이다.

다음달 24일 폴란드와 2022 카타르월드컵 유럽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둔 러시아는 국가명, 국기, 국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경기를 치를 수 없다.

RFU는 "이번 결정은 국제대회의 규정과 원칙,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명백한 차별이다. 보호해야 할 선수와 코치, 클럽과 국가대표팀, 수많은 팬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 상호존중, 정치로부터 독립 원칙을 고수해 온 국제 스포츠 세계를 분열하게 한다"며 "우리는 국제 스포츠법에 따라 FIFA, UEF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카타르월드컵 출전이 무산된 발레리 카르핀 러시아대표팀 감독은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그들은 모두 월드컵에서 뛰는 걸 꿈꿔왔다. 이제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AP통신은 RFU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뉴시스

FIFA와 UEFA가 1일(한국시간) 러시아를 축구계에서 퇴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FIFA와 UEFA 주관으로 치러지는 모든 대표팀 및 클럽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출처=FIFA 공식 홈페이지)

KIA 선발 후보 한승혁, 2이닝 4K 151㎞ '눈도장'

한화 닉 킹험, 2⅔이닝 2실점

KIA 타이거즈 선발 로테이션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승혁이 목표를 향해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승혁은 2월27일 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 선발로 나서 2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진은 4개를 솎아냈다.

총 29개의 공을 뿌리면서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섞었다. 최고 구속은 151㎞까지 나오고 평균 구속은 146㎞를 마크했다.

한승혁은 올 시즌 윤중현, 이민우 등과 함께 5선발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스프링캠프부터 자신의 무기인 빠른 공을 던지며 눈도장을 찍고 있다.

한승혁에 이어 KIA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유승철은 1⅓이닝 1피안타 1실점을 작성했다.

이날 KIA는 한화를 2-1로 이겼다.

한화 선발 닉 킹험은 2⅔이닝 2피안타 4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4관왕' 정재원, 동계체전 MVP 선정

총 유효표 53표 중 32표 획득…김보름 12표·김민석 4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재원(의정부시청)이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접수했다.

정재원은 2월 28일 진행된 MVP 기자단 투표 결과 총 유효표 53표 중 32표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보름(12표)과 김민석(4표)을 여유있게 제쳤다.

정재원은 이날 막 내린 이번 대회에서 5000m, 1만m, 매스스타트, 팀추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원은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인 동계체전에서 MVP에 선정돼 기쁘다"며 "기세를 타고 '동계스포츠' 하면 '정재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올해 동계체전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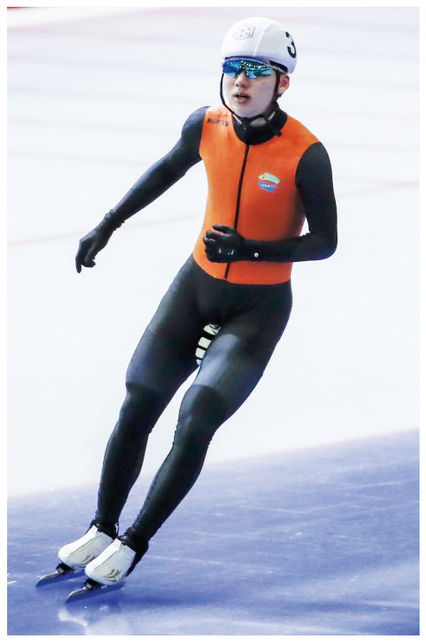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8개 동계 회원종목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최되지 못해 올해 2년만에 열렸다.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8종목(정식 5, 시범 3) 4056명의 선수단(선수 2591명, 임원 1465명)이 참가했다.

경기도가 메달합계 268개, 총 1184점을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서울(871.5점)과 강원(791.5점)이 뒤를 이었다.

정재원 뿐 아니라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저력이 돋보였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빙속 1500m 올림픽 2연속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석(성남시청)은 1000m, 팀추월, 1500m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1000m와 15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썼다. 김보름(강원도청)은 3000m, 팀추월, 1500m 금메달을 획득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에서 한국 타이기록을 세운 정동현(하이원)은 슈퍼대회전, 대회전, 복합, 회전 우승으로 국내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김소희(하이원)는 대회전, 회전, 복합 금메달로 3관왕 리스트가 됐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다수의 대회 5관왕이 배출됐다. 김가온(진부중), 채가은(권선고), 이의진(경기도청) 등은 클래식, 복합, 프리, 계주, 스프린트 세부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이번 대회에서는 4관왕 12명, 3관왕 17명 등이 나왔다. 빙상 스피드 11개, 빙상 쇼트트랙 42개 등 총 53개의 대회 신기록이 작성돼 전회 대비 다관왕 부문 57%, 신기록 부문 89%가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공식행사인 개·폐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종합시상식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올림픽 9연패 여자양궁 삼총사,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안산 "더 좋은 선수, 더 큰 성적을 만들어내는 선수 되겠다"
펜싱 김정환·도쿄올림픽 여자배구대표팀은 최우수상 수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 여자양궁대표팀(현대모비스 강채영, 인천대 장민희, 광주여대 안산) 대표 수상자 안산에게 상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9연패로 한국 양궁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과시한 한국 여자양궁대표팀이 제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을 받았다.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광주여대)으로 구성된 도쿄올림픽 여자양궁대표팀은 2월 28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체육대상을 수상했다.

세 선수는 지난해 8월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경쟁국들을 줄줄이 제압하고 단체전 올림픽 9연패를 달성했다. 덕분에 한국 여자양궁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 서울올림픽부터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상을 내주지 않는 업적을 이어갔다.

특히 안산은 혼성전과 개인전까지 휩쓸어 3관왕을 차지했다.

강채영과 장민희가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홀로 시상식에 나선 안산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선수들 뿐 아니라 대한양궁협회 등 많은 분이 도와줘서 큰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선수, 더 큰 성적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문 최우수상은 펜싱의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이 가져갔다.

올해 우리나이로 마흔이 된 김정환은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남겼다.

김정환은 "올해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도쿄에서 그랬던 것처럼 박진감 넘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자배구는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 명승부를 펼치며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4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김연경은 영상을 통해 "귀한 상을 주신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린다. 많은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자배구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국군체육부대)과 남자 양궁 김제덕(경북일고), 사격 김민정(KB국민은행), 태권도 이다빈(서울시청), 배드민턴 여자대표팀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근대5종 정진화(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이빙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불모지의 한계를 딛고 지난 여름 '아름다운 4위'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이들 역시 장려상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도부문 최우수상은 수원시청 체조부 김성만 감독과 류수정 계명대 양궁부 감독에게 돌아갔다.

체육상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 진흥 도모를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대국민 공개 검증, 사전심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포상심의 소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나눔, 인권, 안전, 총 8개 부문을 시상했다. 대상 1명(이하 단체 포함), 최우수상 12명, 우수상 21명, 장려상 83명이 올해 수상자로 이름을 남겼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체육인들이 훈련, 대회, 저변 확대,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

한국 컬링, '러시아 보이콧' 발표
"우크라 침공 안 멈추면 경기 안 해"

대한컬링연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의미로 향후 러시아와 경기를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

연맹은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국제·친선·연습 경기 등 러시아와 모든 경기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컬링연맹(WCF) 등 국제 스포츠 기구의 뜻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연맹은 성명에서 "대한컬링연맹 소속 모든 컬러들은 WCF와 뜻을 같이해 전쟁범죄와 맞설 것이며, 이를 규탄하는 세계 모든 스포츠연맹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컬링은 3~4월에 열리는 남녀 그리고 혼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전에는 출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세 종목에서 모두 출전권을 가지고 있고, 남자부와 여자부는 모두 러시아와 대결이 예정돼 있다.

이달 19일부터 27일 캐나다 프린스 조지에서 개최되는 여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팀킴이 출전해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2시 러시아와 대결한다.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남자 세계선수권대회에선 현지시간으로 4월5일 오전 9시 러시아와 상대한다.

4월23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혼성 세계선수권대회 대진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용빈 연맹 회장은 "WCF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규제 방안을 긴급히 마련 중"이라며 "우리 연맹도 IOC와 세계 각 종목 기구들의 방침에 동참하고자 한국 종목단체 중 가장 처음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연맹은 무력행위와 전쟁으로 세계평화를 깨뜨리고 한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어떠한 국가 정부와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효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연패 도전

고진영, 세계랭킹 1위 수성 도전

김효주(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70만 달러)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3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뉴 탄종 코스(파72)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지난 2008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14회째(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를 맞이한다. 66명이 출전해 컷 탈락 없이 대결을 펼친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월 말로 옮겨 대회를 열었고, 김효주가 최종일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이번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개인 통산 네 번째 LPGA 투어 우승 이후 아직 정상에 서지 못했다. 한 때 세계랭킹 10위 진입했지만, 현재는 12위로 밀렸다.

한국 선수는 총 1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 랭킹 5위 김세영(29), 랭킹 6위 박인비(34), 박성현(29), 유소연(32), 이정은6(26) 등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진영은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이후 약 3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나선다. 고진영의 세계랭킹 1위 수성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고진영을 맹추격 중이다.

뉴시스